LEE UNG NO IMTO THE 2022 이용노미술관-신세계 협업 특별전 2022 Lee Ungno Museum-Shinsegae Special Exhibition

MEW WOR LD

이용노, 다시 만난 세계 LEE UNGNO, INTO THE NEW WORLD

> UCLG DAEJEON 10-14 OCT 2022

L E E UNGNO **MUSEUM**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모션 포스터로 이동합니다. Click here to view the motion poster.











이응노 LEE UNGNO, (1904-1989)

1924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 <청죽> 첫 입선 Received first prize for Blue Bamboo at the 3rd Joseon Art Exhibition
1935~38	도쿄 가와바타 미술학교, 혼고양화연구소, 덴코화숙 수학 Studied at Kawabata Art School, Honggo Painting Research Center, and Deuko Painting Studio
1948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강의 Taught art at Hongik University
1950	도불기념 개인전 (중앙공보관, 서울) Farewell exhibition held before leaving for France (Central Public Relations Office, Seoul)
1959	개인전 및 부부전 (프랑크푸르트 & 쾰른, 독일) Private and joint exhibitions held (with wife, Inkyung Park, in Frankfurt and Cologne, Germany)
1960	폴 파케티 갤러리와 4년 전속계약 Signed four-year exclusive contract with Galerie Paul Facchetti
1962	파리에서 첫 개인전 (폴 파케티 갤러리, 파리) First private exhibition held in Paris (Galerie Paul Facchetti)
1964	파리 세르누쉬 미술관에 파리동양미술학교 설립 Founded 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inside Musée Cernuschi
1965	제 8회 브라질 상파울로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Received silver prize at the Biennale de Saõ Paolo
1967	개인전(누마가갤러리, 스위스) Private exhibition held (Galerie Numaga, Switzerland)
1972	개인전 (퀘리니 스탐팔리아 재단, 베니스) Private exhibition held (museum owned by Querini Stampalia Foundation in Venice)
1973	평론가 피에르 자키야르와 「서예, 중국회화 그리고 추상회화」 공저 Calligraphie, peinture chinoise et art abstrait, a book co-authored with critic Pierre Jaquillard, publish
1974	개인전 (아닉 르 무안느 갤러리, 파리) Private exhibition held (Galerie Annick Lemoine, Paris)
1975	회고전 《이응노 회화와 콜라주》 (브리스톨 시립미술관, 영국) Retrospective held (Lee Ungno: Paintings and Collages, at Bristol Museum of Art, UK)
1978	동양화 교습서 「수묵담채화법」 파리에서 출판 Textbook on Eastern painting (L'art Peindre a L'encre de Chine) published in Paris
1985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산요 갤러리, 도쿄) Joint exhibition of Lee Ungno and Park Inkyung held (Gallery Sanyo, Tokyo)
1988	회고전 <1950-1980>(브루노 파게티 갤러리, 뉴욕) Retrospective held (Lee Ungno Retrospective: 1950-1980, Bruno Facchetti Gallery, New York)
1989	프랑스 파리에서 1월 10일 별세 Died in Paris on January 10

전시 서문

이응노미술관 학예연구사 김현지 이응노와 신세계는 1970년대부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4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월담 권영도 애장근대서화전》에서는 장승업, 허련, 허백련, 김은호 화백 등과 함께 이응노의 작품을 전시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1976년 5월에는 신세계 미술관에서 《고암 이응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개최된 이응노 개인전은 당시 이응노 화백의 신작 위주의 전시로, 이응노와 신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 3월, 신세계 갤러리 광주에서 《고암 이응노》개인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응노미술관과 대전 신세계 갤러리와의 협업으로 열리는 특별전 《이응노, 다시 만난 세계》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설립 10주년 및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총회를 기념하는 전시기이도 합니다.최신 과학기술과 만난 이응노의 예술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관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신세계 갤러리 외부에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간입니다.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중앙 보이드에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9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미디어월과, 6층에 2미터짜리 12개의 미디어월을 통해 디지털화된 이응노의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관과 같은 전시 공간은 14세기경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 비평가 브라이언 오 도허티(Brian O' Doherty)가 1976년 "Inside the White Cube"를 통해 정의했던 흰 벽을 사용하는 화이트큐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에 의해 화이트큐브라는 물리적 공간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대전 신세계 갤러리 외부 공간을 통해 더 많은 관람들과 만나고자 의도했습니다. 휴스턴미술관(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의 피터 마르시오(Peter Marzio) 관장은 "미술관은 쇼핑몰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확장된 전시공간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미술관은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소통하고 미술문화를 전파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전시에서는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를 방문하는 모두가 관람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응노 예술에 녹아들어 일상 속에서 더 가깝게 예술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대전 신세계 갤러리 내부에서의 전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응노 화백의 아카이브 자료, 원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로 새롭게 재해석된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응노는 1956년 프랑스 평론가 자크라센느의 초청을 받은 후 1958년 54세의나이에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파리에 정착한 이응노는 당시 프랑스 미술계의흐름이었던 '앵포르멜(informel)' 회화양식을 흡수한 후 전통 필묵과 결합해동양적 감수성이 가미된 새로운 추상을 창작하게 됩니다. 디지털 비평가인 마샬

맥루한은(Marshall McLuhan)은 본인의 저서인 '미디어의 이해'에서 "모든 미디어는 우리 인간 감각의 확장이며 이 감각이 개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된 이응노 화백의 세계는 예술에 대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감각을 생동감 있게 확장합니다. 나아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재창조는 그림 안의 개체가 마치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은 몰입의 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응노미술관과 대전 신세계 갤러리가 준비한 이번 《이응노, 다시 만난 세계》 전시를 통해 이응노의 예술세계를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각자 마음속에 품은 예술문화 생활의 신세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hibition Statement

Curator of Lee Ungno Museum KIM Hyunji Lee Ungno's relationship with Shinsegae Group dates back to the 1970s. At the Favorite Modern Paintings from the Collection of Kwon Youngdo exhibition, held at the Shinsegae Gallery from July 30 through August 11, 1974, Lee's paintings were featured alongside the creations of Jang Seung-eop, Heo Ryeon, Heo Baek Ryeon, and Kim Eun-ho. Two years later, in May 1976, the same gallery held a private exhibition titled Goam Lee Ungno that predominantly displayed Lee's most recent works. This 1976 exhibition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showed just how closely worked Lee and Shinsegae were. Another exhibition that showcased this connection was the Goam Lee Ungno exhibition, held at Gwangju Shinsegae Gallery in March 2018.

Lee Ungno, Into the New World, co-hosted by the Lee Ungno Museum and Daejeon Shinsegae Gallery, is a special exhibition that commemorates: the decennial of the Daejeon Goam Art & Culture Foundation; and the 2022 General Meeting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The exhibition provides viewers with the opportunity to appreciate Lee's art in a new way, as it is shown using the latest technologies.

The exhibition is comprised of two sections, the first of which is outside the Shinsegae Gallery. This portion of the exhibition features digitized versions of Lee's artworks, projected onto a nine-meter-tall media wall that is part of the three-story Daejeon Shinsegae Art & Science Central Void and 12, two-meter-tall media walls that are on the sixth floor of the building.

Modern exhibition venues, such as art galleries, originated in the Renaissance era (in the14th century) and after centuries of development, universally adopted a white-walled format, a phenomenon which is explained in detail in "Inside the White Cube,"

a seminal 1976 essay by art critic Brian O'Doherty. Artists from a wide range of genres have attempted to transcend the physical/ spatial limitations of the "white cube" of the art gallery. One such effort to transcend the white cube—and expose Lee's art to a wider audience—is the use of the exterior of the Daejeon Shinsegae Gallery as an exhibition space. Peter C. Marzio, the late former director of the Museum of Fine Arts in Houston. believed that museums should be "a place for all people" and serve as centers for the local community that are as easily accessible as shopping malls. What Marzio rightly pointed out was the importance of expanding exhibition spaces so that they can accommodate a much larger transient pool of visitors. The art museums of the 21st century are not only places for displaying artworks; they also extend the reach of art so that it can communicate closely with visitors. In other words, by using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everyone who visits the Daejeon Shinsegae Art & Science is a visitor to the exhibition. This means that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hether they planned it or not, experience Lee's art as it becomes incorporated into the fabric of their daily routines.

The second exhibition space is inside Daejeon Shinsegae Gallery. The gallery not only features archives on Lee and his original artworks but also a new, digital media interpretation of his artistic world.

In 1958, two years after being invited to France by the French art critic Jacques Lassaigne, Lee Ungno moved to France at the age of 54. After settling in Paris, Lee thoroughly acquainted himself with Art Informel, the painting style that was prevalent in the French art community at the time. He then merged Art Informel with traditional Korean brush and ink and founded a new

type of abstract art with a distinctly Eastern aesthetic. In his book,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media theorist Marshall McLuhan argues that all media formats are an extension of the senses and that it is the senses that make up an individual's belief systems and experiences. The digital interpretations of Lee's art included in this exhibition present the artist's lifelong experiments with art in a vivid, multi-sensory format, providing visitors with a unique experience that deeply resonates with each individual at a personal level. Visitors will feel, through media-based recreations, as if the subjects of Lee's artworks are leaping out of the canvas, which will make the exhibition a highly immersive experience.

Through Lee Ungno, Into the New World, the Lee Ungno Museum and Daejeon Shinsegae Gallery invite visitors to reengage with the fascinating world of Lee Ungno's art and to find the door to a new world in which the everyday is closely intertwined with culture and the arts.















구성 Composition 1963,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139×70cm



구성 Composition 1978,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72.3×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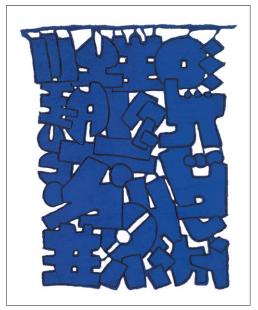
율곡과 신사임당의 시 A Poem of Yulgok and Sinsaimdang 1975,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139×60cm



구성 Composition 1976,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74×93cm



구성 Composition 1968,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53×59cm



구성 Composition

1974, 융위에 먹 Ink on cotton flannel, 197×135cm



밤나무 Chestnut tree 2009, 태피스트리 Tapestry, 313×263cm





이용노, 다시 만난 세계 LEE UNGNO. INTO THE NEW WORLD

함으나는 이용경구 여전 선제계 급하려야의 현업으로 열리는 목표면 (이용도, 다시 만난 세계)는 대한 교명이 물론체인 설립 아이는 및 2022년 세계제대본본(한당(한다.이용권을 기계하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최신 개위기술은 만난 이동도의 여운을 우리가 어떤 행성으로 제품과 급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구해보는 시간에 될 것입니다.

세건의 볼 것입니다. 에번 전시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타갑니다. 첫째는 산세계 결하면 외부에 불하는 단수가 다니는 공간입니다. 대한 선생에 이번 분시에는 중당 성이되어 가능보다 결혼하여 이었다는 의대대의 살아는 소객을 때다어들고, 6층에 200대의 전체에 이다더들을 하는 지역 에에 출세계를 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간과 같은 전시 공간은 4세가점 관매성스 시대부터 시작에 비공가 쓰러이면 오 도워되 (Brian ^C Deberty)가 1976년 Twick the White Che⁴ 등 등에 설계되면 5만 비용 사용는 하다라 보스까지 이어때없습니다. 하지만 근데에는 다양한 백술가들에 위해 하여드용시하는 등에서 중인 전에는 다양한 백술가들에 위해 하여드용시하는 등에서 중인 전에는 1975년 학계대용 2세간 등에서 중인 전에는 1975년 학계대용 2세간 등에서 중인 전에서 1975년 학계대용 2세간 등에서 2015년 위에 5대 2세간 지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전해되고 있습니다.

도 번째 공간은 대한 신세계 결과리 내부에서의 전시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렇는 화백의 아카이브 자료, 원화문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로 새롭게 재해석된 이용도의 작품세계를 반대볼 수 있습니다.

UCLG STOR

22.10. 11. 4. — 27.

당에서 인당 역표는 병실의 판단을 가지에 될 것입니다. 이용노 미술관과 대한 선세계 결래하가 준비한 이번 (이용노 다시 만난 세계) 권신를 통해 이용노의 예술세계를 다시 만난불 수 있기를 취임합니다. 나이가 각자 마음속에 몸은 예술문화 생활의 선세계(新世界) 또한 발견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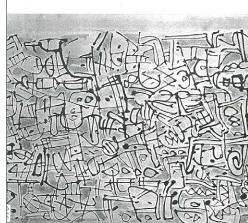


구성 Composition 1970,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light colour on paper, 66×21cm

顧卷 李 應 魯 UNG-NO,LEE

1976

5.11-23 ASAMI 0/5,28



1976년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 《고암 이응노》 개인전 도록 Catalogue of the "Goam Lee Ungno" private exhibition, which was held at Shinsegae Gallery from May 11 through 23, 1976.

1976년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고암 이응노》개인전 도록이다. 이 시기 즈음 제작된 이응노의 작품과 연보, 출품작 리스트와 함께 평론가 이경성의 평론 글이 실려 있다.

This catalogue is of the "Goam Lee Ungno" private exhibition, which was held at Hwashin Department Store (today's Shinsegae Gallery) from May 11 through 23, 1976. It includes images and a timeline of artworks created around this time, a list of artworks featured in the exhibition, and an essay by art critic Lee Kyung 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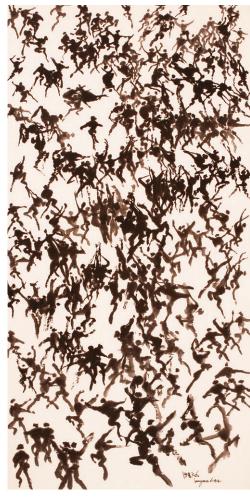
동방견문록 The travels of Marco Polo Series 1980,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16.5×16.5cm



대나무 *Bamboo* 1976,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133×69cm



군상 People 1988,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130×70cm



군상 People 1987,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181×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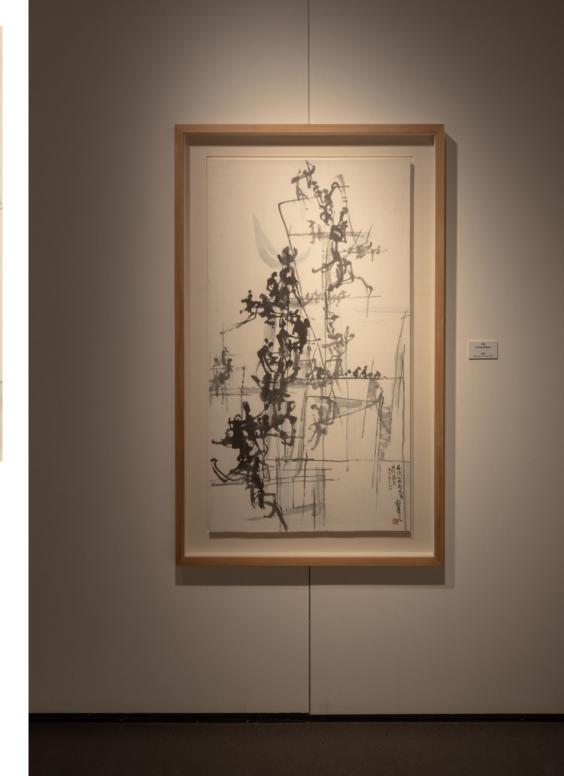
동방견문록 The travels of Marco Polo Series 1980,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34×3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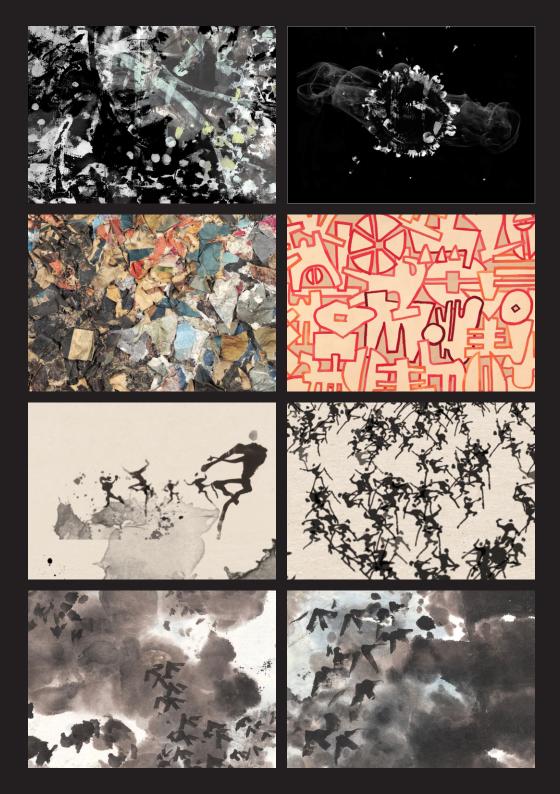


동방견문록 The travels of Marco Polo Series 1980, 한지에 수묵담채 Ink and colour on korean paper, 28.5×38.6cm



구성 Composition 1959,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129×69cm





이응노와 함께하는 환상의 세계

이 공간에서는 구글 아트 카메라로 촬영된 군상, 문자추상, 주역 등 이응노화백의 하이라이트 작품을 미디어 작품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월의 구현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을 활용했습니다. 프로젝션 맵핑은 대상물의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특정 공간을 몰입감 있는 미디어 공간으로 바꾸어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상 현실에 있는 듯한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자유롭게 서서, 앉아서 혹은 누워서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면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미디어월에 구현된 이응노 화백의 아트카메라의 이미지들을 통해 새로운 관람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The Fantasy World with Lee Ung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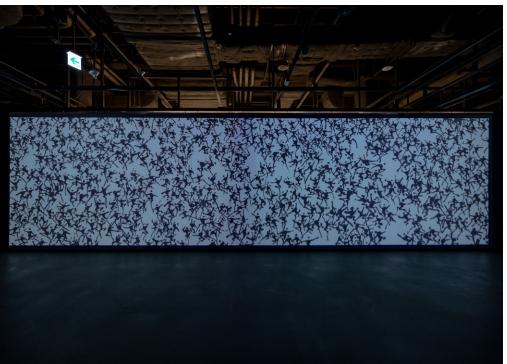
Lee Ungno's highlight artworks, including People, Letter Abstract, and I Ching 64, will be available for viewers in the form of media art that was captured by Google Art Cam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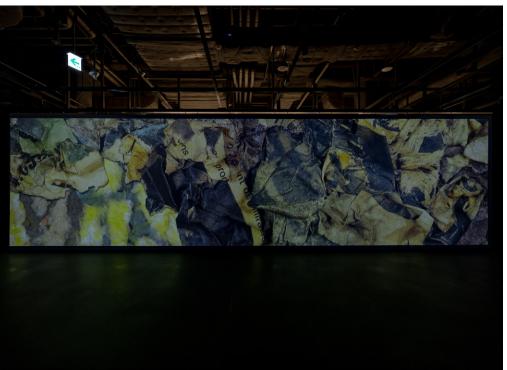
The technology employed to create the media wall is projection mapping, which projects a video onto the surface of a subject to radically change its appearance and create the impression of a completely different reality. By transforming a specific location into an immersive media space, projection mapping can make the viewer feel as if he or she is inhabiting a virtual reality.

Here, visitors will be free to view artworks as they wish, whether standing, sitting, or lying down. By viewing the Art Camera images of Lee's works reflected onto the massive media wall, visitors will both enjoy a fascinating experience and discover a new way to appreciate fine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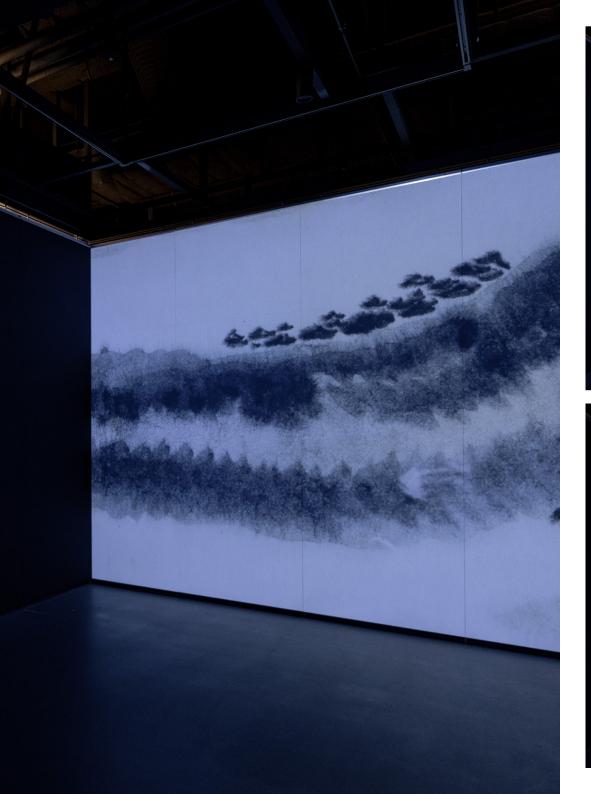
대나무와 풍경

Bamboo and Landscapes

이 곳에서는 이응노화백의 예술가로서의 출발이기도 한 대나무 작품과 동방견문록 시리즈를 중심으로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응노화백이 고암(顧菴) 이라는 호 이전에 죽사(竹士)라는 호를 사용했던 점을 통해서도 인간 이응노에서, 예술가 이응노로 변화되는 시작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대나무 밭을 본 이후 그렸던 <풍죽>이 1931년 제 10회 조선미전 특선에 당선하면서 예술가로서의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평생에 걸쳐 대나무 작품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응노 화백의 대나무 작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This exhibition hall is built around Lee's bamboo paintings and The Travels of Marco Polo series, the two works that heralded Lee's career as an artist. The artistic name that Lee used before "Goam" (顧菴, "to become an artist as accomplished as Gu Kaizhi") was "竹士" (given by Kim Gyu-jin for his skill in portraying bamboo and quickness of learning (that resembles bamboo's ability to quickly absorb water)"), suggesting that his change of name roughly marks the point at which he turned from an ordinary person into an artist. Wind Bamboos, which Lee was inspired to paint after seeing a bamboo forest shaking under wind and rain, received special mention at the 10th Joseon Art Exhibition, held in 1931. This award became Lee's primary motivation to continue his artistic endeavors, and he went on to produce bamboo paintings for the rest of his life. It is due to their foundational role that Lee's bamboo paintings remain significant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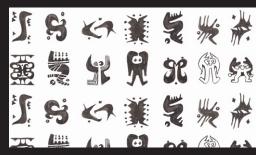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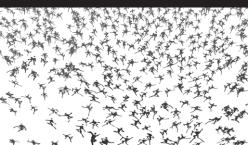


















Lee Ungno: The Movement

'리듬(Rhythm) - 비트윈(Bit-Win) -하모니(Harmony)'의 세부 주제로 이어지는 'Lee Ungno : The Movement' 작품은 이응노화백의 예술세계를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리듬(Rhythm)

이응노 화백의 문자추상 작품들로 구성된 '리듬(Rhythm)' 파트에서는 작품 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고 어우러집니다.

2. 비트윈(Bit-Win)

두 번째 파트는 이응노화백의 대표작인 <이응노, 군상, 1986, 한지에 수묵, 167x266cm>을 재해석 합니다. '비트윈(Bit-Win)'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인 'bit'와 군상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너와 나', '우리 사이'라는 뜻의 영문 'between'의 합성어입니다. 3차원적인 시야와 화면 전환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모션 그래픽을 통해 고찰해 봅니다.

3. 하모니(Harmony)

마지막 파트인 '하모니(Harmony)'는 이응노화백의 동방견문록 작품으로 구성됩니다. 고암 이응노는 1980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한 책을 집필했던 작가가 삽화를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주제로 무려 79점에 이르는 풍경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직접 책을 읽고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 동·서양 시선의 교차가 자아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동방견문록 시리즈를 3차원으로 구현함으로써 이응노화백의 상상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Lee Ungno: The Movement consists of three parts subtitled "Rhythm," "Bit-Win," and "Harmony." The exhibition is designed to help visitors experience the art of Lee Ungno through moving images in a 3D space.

1. Rhythm

In Rhythm, the first part of the video presentation, viewers are introduced to a selection of calligraphic abstractions created by Lee Ungno that come together through harmonious movements to form a human figure that looks like it is dan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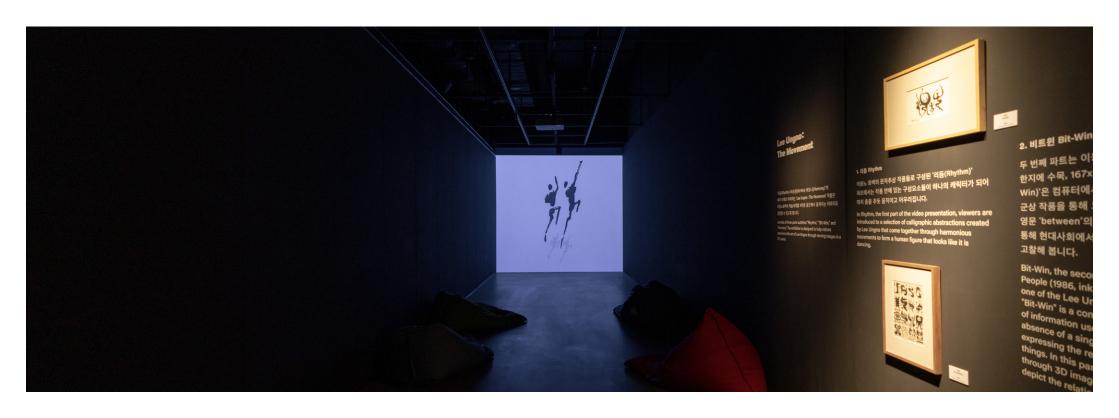
2. Bit-Win

Bit-Win, the second part of the video, is a reinterpretation of People (1986, ink on mulberry paper, 167 x 266 cm), which is one of the Lee Ungno's most widely known works. The subtitle "Bit-Win"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bit" (the smallest unit of information used by computers), signify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ingle feature, and the English word "between," expressing the relationship that connects two people or things. In this part of the video, motion graphics, presented through 3D images

and changes of scenery, are used to depi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n the modern era.

3. Harmony

"Harmony," the third and final part of the video presentation, portrays artwork from Lee Ungno's The Travels of Marco Polo Series. This series, which eventually included a total of 79 artworks, was begun by the artist at the request of an author who had written a book about Marco Polo's famous travelogue. Lee Ungno did not read the book himself but rather created his artwork series based on stories told to him by someone who had read the book. The 3D images presented in this part of the video convey scenes of beauty from the East and West, helping visitors enter into the world of imagination created by Lee Ungno.



Lee Ungno: The Movement

'리듬(Rhythm)-비트윈(Bit-Win)-하모니(Harmony)'의 세부 주제로 이어지는 'Lee Ungno: The Movement' 작품은 이용노화백의 예술세계를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nsists of three parts subtitled "Rhythm," "Bit-Win," and "Harmony." The exhibition is designed to help visitors experience the art of Lee Ungno through moving images in a 3D space.





1. 리듬 Rhythm

이응노 화백의 문자추상 작품들로 구성된 '리듬(Rhythm)' 파트에서는 작품 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고 어우러집니다.

In Rhythm, the first part of the video presentation, viewers are introduced to a selection of calligraphic abstractions created by Lee Ungno that come together through harmonious movements to form a human figure that looks like it is dancing.





2. 비트윈 Bit-Win

두 번째 파트는 이용노화백의 대표작인 <이용노, 군상, 1986, 한지에 수목, 167x266cm>을 재해석 합니다. 비트윈(Bit-Win)'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인 'bit'와 군상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너와 나', '우리 사이'라는 뜻의 영문 'between'의 합성어입니다. 3차원적인 시야와 화면 전환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모션 그래픽을 통해 고참해 봅니다.

Bit-Win, the second part of the video, is a reinterpretation of People (1986, ink on mulberry paper, 167 x 266 cm), which is one of the Lee Ungno's most widely known works The subtitle "Bit-Win"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bit" (the smallest unit of information used by computers), signify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ingle feature, and the English word "between," expressing the relationship that connects two people or things. In this part of the video, motion graphics, presented through 3D images and changes of scenery, are used to depi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n the modern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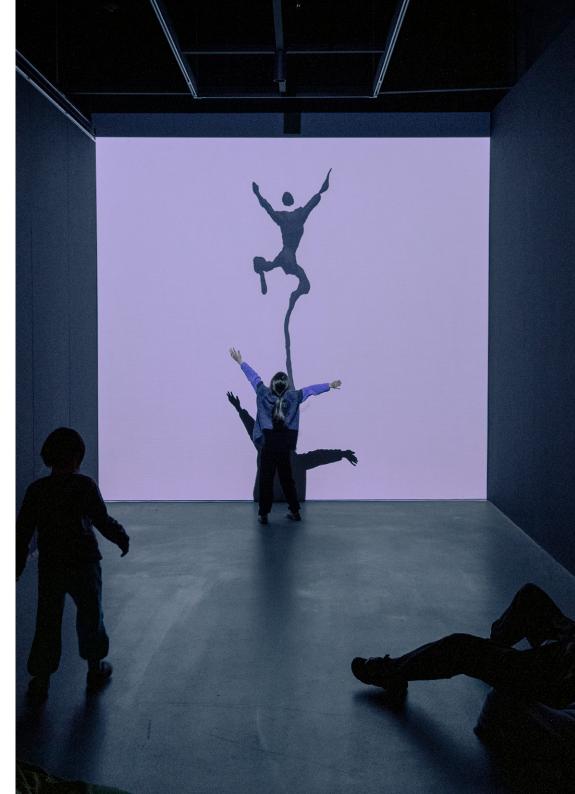
3. 하모니 Harmony

마지막 파트인 '하모니(Harmony)'는 이용노화백의 동방견문록 작품으로 구성됩니다. 고암 이용노는 1980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한 책을 집필했던 작가가 삽화를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주제로 무려 79점에 이르는 풍경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직접 책을 읽고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 동·서양 시선의 교차가 자아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동방견문록 시리즈를 3차원으로 구현함으로써 이용노화백의 상상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Harmony," the third and final part of the video presentation, portrays artwork from Lee Ungno's The Travels of Marco Polo Series. This series, which eventually included a total of 79 artworks, was begun by the artist at the request of an author who had written a book about Marco Polo's famous travelogue. Lee Ungno did not read the book himself but rather created his artwork series based on stories told to him by someone who had read the book The 3D images presented in this part of the video convey scenes of beauty from the East and West, helping visitors enter into the world of imagination created by Lee Ungno.









구성 Composition

1977,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29×21cm



군상 People

1978,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18×29cm





2022 이응노미술관-대전신세계 협업 특별전 《이응노, 다시 만난 세계》

2022. 10. 4. (화) - 11. 27. (일) 대전신세계 Art&Science 6F 대전신세계갤러리 2022 Lee Ungno Museum-Shinsegae Special Exhibition LEE UNGNO, INTO THE NEW WORLD

October 4 (TUE) - November 27 (SUN), 2022 Daejeon Shinsegae Art&Science 6F Daejeon Shinsegae Gallery

이응노미술관

Lee Ungno Museu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 157 Dunsandae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www.leeungnomuseum.or.kr

Shinsegae Gallery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1, Expo-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대전신세계 Art&Science 신세계갤러리

Daejeon Shinsegae Art&Science

큐레이터 Curator

디자인 Design

스카이온 SKY-ON

1, Expo-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 www.shinsegae.com

이한얼, 백지홍 Lee Hanearl, Back Jihong

노네임프레스 (NO-NAME)PRESS

시공 Exhibition Hall Construction

발행처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 대전신세계 Art&Science

발행인

류철하, 윤석희

Published by

Daejeon Goam Art & Culture Foundation Lee Ungno Muesum, Daejeon Shinsegae Art&Science

Publisher

Ryu Chulha, Youn Seokhee

총괄 Supervisor

김상호 Kim Sangho

기획 Curator

김현지 Kim Hyunji

학예 Curatorial Staffs

곽영진, 김은정, 김지윤

Kwak Youngjin, Kim Eunjung, Kim Jiyoon

학예지원 Curatorial Support

김은경 Kim Eungyung

홍보 Public Relations

김현지 Kim Hyunji

홍보지원 Public Relations Support

김건희, 이혜연, 이성아

Kim Geonhee, Lee Hyeyeon, Lee Seong-a

행정 Administrative Support

도성중, 김윤규, 임대중, 허수현

Do Sungjung, Kim Yunkyu, Lim Daejung, Heo

Soohyun

미디어제작 Media Production

유니트폼, 에이지미디어 Unitform, AZ Media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 제작

Digital Signage Media Production

김도형 Kim Dohyung

디지털사이니지 애니메이션

Digital Signage Animation

정예은, 염만호, 강승원

Jung Ye-eun, Yum Manho, Kang Seungwon

프로젝션 매핑 Projection Mapping

주식회사 카이 KAI Inc.

사진·영상 Photography·Video

팔사진관 Palsazin

운송·설치 Shipping-Installation

아트라인 Art Line

번역 Translation

코리아헤럴드 Korea Herald Translation Center

© 이응노미술관, 신세계갤러리 2022

이 도록에 실린 도판과 글의 저작권은 해당 창작물의 저작권 보유자 및 창작자에게 있으니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 2022 LEE UNGNO MUSEUM, SHINSEGAE GALLERY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including plates and texts can be reproduced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right holders indicated above.

2022 이응노미술관-대전신세계 협업 특별전 《이응노, 다시 만난 세계》 2022 Lee Ungno Museum-Shinsegae Special Exhibition LEE EUGNO, INTO THE NEW WORLD 2022. 10. 4. (TUE) - 11. 27. (SUN) 대전신세계 Art&Science 6F 대전신세계갤러리



